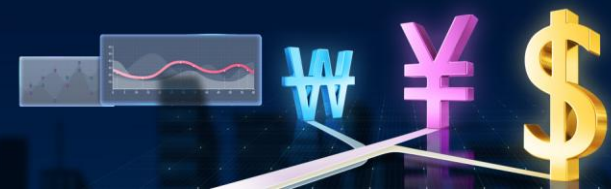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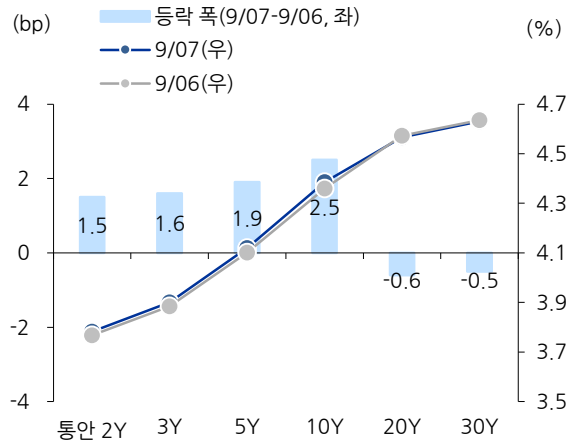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9/7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900%	1.6	62	94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85%	2.5	7.2	100.0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8.5	47.6	47.5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12	-5.0	-11.0	-23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17	-27.0	-42.0	-775.0
	미국채 2년물	4.367%	2.8	2.1	89.5
	미국채 10년물	4.783%	1.5	6.3	61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1.6	43.0	37.5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395%	4.6	6.1	54.0
	호주국채 10년물	5.180%	3.0	11.2	4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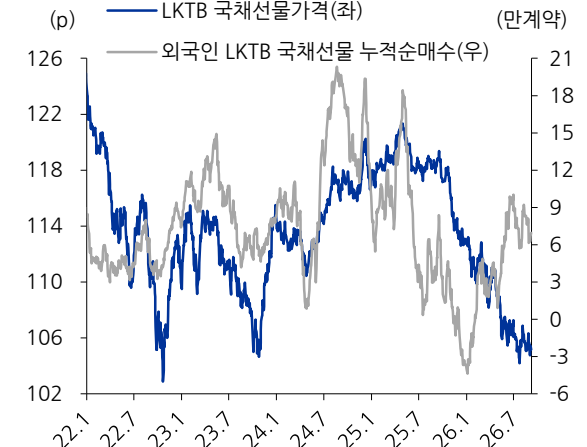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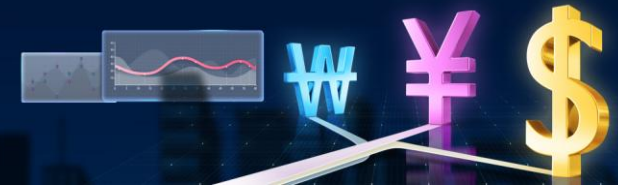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.
- 간밤 미국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로 국내 금리도 상승 출발. 9월 FOMC 인상 확률 다소 높아졌지만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에 금리 상승폭 제한.
- 장중 원/달러 환율이 급락했고,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장중 한 때 금리 하락 전환하기도 함. 국고채 3년 입찰은 강하게 진행. 오후 들어 금리 하락폭 반납하며 상승 전환. 환율 낙폭 축소와 국내 기관의 국채선물 매도, 특별한 국내 재료가 없어 방향성을 견인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노동절로 휴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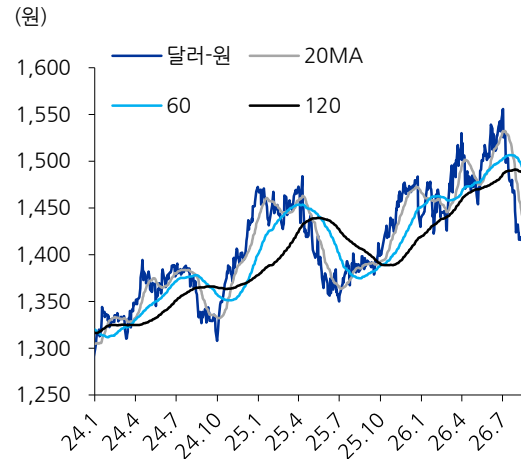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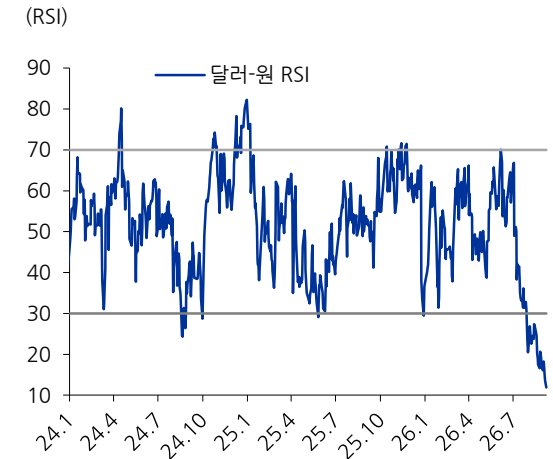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7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40.50	-0.7%	-2.1%	-6.8%
	달러지수	98.92	-0.2%	-0.5%	0.6%
	달러/유로	1.16	0.1%	0.0%	-1.0%
	위안/달러(역외)	6.71	0.0%	-0.1%	-3.9%
	엔/달러	154.37	-1.2%	-3.4%	-1.5%
	달러/파운드	1.35	0.2%	-0.1%	0.6%
	헤알/달러	5.13	0.0%	-1.1%	-7.0%
상품	WTI 근월물(\$)	91.48	0.2%	9.7%	59.3%
	금 현물(\$)	4,405.69	-0.6%	-0.9%	2.0%
	비트코인(\$)	79,920	-2.6%	1.1%	-9.1%
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 소식에 낙폭 축소하며 -9.90원 하락한 1,340.50원 마감(야간 1,346.70원).
- 원달러 환율은 美 8월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매도 우위 역내 수급에 하락, 종가 기준 '24년 10월 이후 최저치 도달. 엔화 상승과 외국인의 코스피 +2.5조원 순매수가 원화 강세 지지.
- 달러-원은 오전 장중 저점 1,334.70원 기록한 후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 보도에 낙폭 축소.
-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중단하고 달러 매수에 나선 1,330원대가 1차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 다만 주주환원과 메가프로젝트 국내투자 등 내년까지 수출기업 환전 수요 높아 연내 달러-원 저점은 더 낮아질 가능성 열어둘 필요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美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엔화 강세 영향에 하락(DXY -0.2%).
- 달러-엔은 BOJ가 9월 금정위에 이어 연내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부각되며 상승. 지난 주 다카타 위원이 일정 속도에 매이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, 엔화 강세 심리 높아짐.
- 유로-달러는 ECB의 9월 금리인상 기대 반영되며 달러 대비 강세.
-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-이란 군사충돌 지속되면서 브렌트유가 한때 100달러 선에 근접.